

人力難 時代의 建築補助士의 問題

李 世 勳

나는 「建築補助士」란 用語가 언제 누가 어떤 理由에서 만들었는지 由來는 알 수 없다.

国会建設分科委員? 或은 主務長官? 아니면 主務長官을 모시든 部下職員中 하나? 어쨌든 독특한 用語가 탄생한 것은 事實이다.

全世界 人口가 로마를 찾는 것은 그時代의 그 엄청난 強大國의 文化的 側面을 考察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日本의 文化나 風習을 比較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外形으로 보아 우리와 다를바 없다고 輕視 하다가도 內面을 파헤쳐 본즉 우리와 比較할수 없는 內實이 있다는 것을 異口同聲으로 이야기 한다.

어느 나라도 重要한 文化와 歷史를 後孫에게 남겨 물려줘야 할때 內實커녕 外形조차 없이 방황하면서 “朝三暮四” 格으로 한사람의 精神的 制度的 오류로 因하여 文化의 一部인 建築分野를 害치게 되었다면 먼훗날 歷史에 씻을수 없는 誤點을 남기게 될것이다.

賢人이라고 불리우는 孟子는 이런말을 했다.

每日같이 도적질 하는자가 마음을 고쳐 먹고져 이번달에는 二十回の 도적질만 할것ियो 다음 달에는 十回の 도적질 그다음달에는 五回の 도적질만 그리고 그다음 부터는 도적질을 하지 않겠다면을바르지 못함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遲滯 말고 即時 是正하고 改善해야 되겠다고 生覺하면서 建築補助士 問題도 生覺해 보자.

그처럼 強國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무너질수 있을까? 에 혹자는 教育不在 였다고 말하는 者도 있다. 이처럼 教育이 重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러기에 요즘 教育問題를 社會問題로써 再 鼎立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教育은 반드시 知識의 注入이나 或은 情報의 傳達로 落後되어 가는듯한 學校教育(특히 建築教育)만이 全部가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家庭教育 社會教育 先後輩間에 주고 받는 輕驗에 依한 實質의 人間教育들이 얼마든지 存在한다.

옛부터 學者는 酒. 色. 財. - 禁 이라고 했거늘 어찌 배우는 後輩에게 拜金思想이나 黃金萬能思想을 가르치는 길잡이가 되어서야 우리先輩들로써 좋은 指導요 좋은 制度을 만들어 줬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果然 우리들은 「建築補助士」들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

우리들은 옛부터 벼슬을 좋아했던가 싶다. 벼슬사字로 불리는 「士」字을 많이 쓴다. 심지어 「建築補助士」까지 말이다. 벼슬자리에 오른 「建築補助士」이기에 貴한것인지 벼슬자리를 싫어하기에 「建築補助士」를 보기가 어려운가. 참으로 「建築補助士」는 實質的으로 內實없는 外形만 굴러다니고 있음을 눈앞에서 볼때 慨歎하지 않을수 없다.

法에서 保障해주는 훌륭한 制度이라면 왜 이처럼 形式만 갖춘 「建築補助士」만 存在하고 設計事務所에서 勤務하겠다는 참된 「建築補助士」가 왜 적은지 생각해 보자. 補助士로 勤務로서 建築士 試驗資格에 實務經驗 年限을 앞당겨 준다는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것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銓衡程度의 節次에서 建築士가 될수 있을것이라는 希望이 있어 「建築補助士」로 일한단 말인가.

무엇때문에 建築學文을 工夫한 後輩들이 校門을 나서면서 設計事務所를 回避하고 있는가.

某 大學校 工大 建築科의 境遇는 단 一名도 設計事務所에 勤務하지 않은해가 繼續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 모-두는 우리 建築人들의 責任이요 잘못이 明白하나 「建築補助士」란 用語를 만든 사람만은 建築人이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빌고있다.

우리젊은 後輩들이 設計事務所를 쳐다보는 눈은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보고있다. 霸氣滿滿하고 뜻이 하늘을 치솟을 遠大한 힘을 갖춘 젊은이들이 世界를 발판으로 삼고 그一部인 中東이나 歐美 等地를 누비며 世界 어느 建築學文이나 建築技術에 뒤질소냐 하면서 見聞과 視野를 넓혀 가기를 願하고 있다.

官 主導形式인 行政官署 周辺에서 糊口之策을 目的으로 東奔西走 하는 設計事務所에서 不條理와 妥協 及至는 排除 하는 모습을 보고 設計事務所에 勤務하려는 者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合同事務所の 制度를 만들어 반드시 「建築補助士」가 있어야만 비로서 단 拾坪의 單獨住宅 마저도 設計할수 있다는 行政當局의 制度에도 疑問點이 없을수 없다.

勿論 法 趣旨의 合同事務所는 庶政刷新 및 總和維新的의 精神에서 만든 制度인 것만은 事實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二國策에 違背됨이 없는 制度를 檢査하여 改善할 必要가 있다면 改善하여야 된다고 生覺한다.

또하나 設計事務所의 「建築補助士」뿐만 아니고 補助員 或은 全職員의 移職率이 높은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理由中 經濟的 側面을 살펴본다면
첫째 他業界에 比하여 報酬가 낮음이고,
둘째 將來性이 없다는 것이다.

設計事務所가 零細性을 免치 못하는 理由는 世界經濟에 너무 敏感한것도 있겠으나 法으로 定해진 報酬率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덤핑 行爲도 큰 原因이다.

덤핑 行爲을 한마디로 말하기란 大端히 어렵겠으나 私見으로는 “能力不均衡”이라고 말하고 싶다.

能力도 없는者가 資格의 基準인 免許만 가지고 큰소리만 하거나 或은 資格을 用하는 者가 있기에 能力있는 젊은 後輩들은 門戶가 좁고 그어느 國家考試보다 훨씬 좁은 閨門을 通過 直前に 挫折케하는 커다란 要因中 하나가 아닐까 싶다.

좀지나친 表現일지 모르겠으나 法規集이나 찾아보고서 設計受注를 받을수 없고 누가 먼저 市庁이나 区庁 或은 郡庁에 가서 建築許可 擔當者와 建築行政의 條例, 指計, 方針, 示達, 等”의 內容을 詳細히 알고 있느냐에 建築士의 能力을 평가함 하게 하는 隨時 바뀌는 建築 行政 또한 問題아닐수 없다. 다시말해 그동안에는 設計事務所의 能力 評價가 마치 不條理와 妥協 잘하는 곳이 能力있는 事務所 인 것처럼 國民의 一部에서는 잘못 認識하고 있는것도 우리 冷徹히 反省 해야 할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過度期에 補助士의 報酬도 他界에 比하여 낮을수 밖에 없다. 法을 違反해가면서 建築物을 施工 하는 사람은 無學者요 이를 監理 指導 소홀이라 해서 責任을 免치 못하는 것이 “建築士”요 “建築補助士”라면 마치 쥐에게 고양이를 지키라고 하는 격과 다를바 없는 現實을 잘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將來性이 없다고 한다. 急變 世界는 急變하고 있으며 우리의 建築도 急變하고 있다.

얼마전만 해도 우리 建築士(家)가 建築物에 関한 모-는 部分을 全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오늘에는 그러하지 않다.

計劃, 構造, 設備(電氣, 暖房, 衛生, 消防 等) 都市計劃 造景 심지어 室內裝飾專門家와 透視圖 專門家等”까지 登場을 하여 우리의 業務를 分擔 해주는것까지는 多幸한 일이 겠으나 零細性을 免키란 어떠한지 궁금할뿐이다.

세계의 “에너지”危機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는 太陽 熱住宅 開發이 時急히 要請 되는 이때 果然 우리가 알고 있는 住宅과 同一한 形態의 것이 存在할 수 있을지 또한 궁금하다.

오이씨와 같은 버선의 曲線 云云하며 우리것의 草家 지붕의 아름다운 曲線等等은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急變해가는 어려움속에서 綜合藝術을 하는者요 造形藝術을 하는者요 또는 交響樂團의 指揮者와도 같다고 하는 우리 建築士들은 우리의 뒤를 이을 後輩들에게 門戶을 開放하고 保護하기 爲하여 制度的으로 「建築補助士」을 만들어 特惠을 附與 하다면 그自体로써 뜻이 깊은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国力과 經濟力이 世界強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져 할때 人力不足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더욱 零細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設計事務所에 固定配置式의 強制規定인 「建築補助士」制度는 充分히 檢討 되어야 한다고 生覺한다.

筆者 : 이세훈건축